

#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해외서 ‘펑펑’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 첫 200억 달러 넘어  
올 경상수지 환란 이후 첫 적자 전환 예상

## 한은, 국제수지 동향 발표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여행 경비로 쓰내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경제둔화 가능성 등으로 줄어들기미를 보이고 있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294억 천만달러의 70%에 해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을 대거 사들인 반면 국내 주식은 팔아치웠으며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해외단기 차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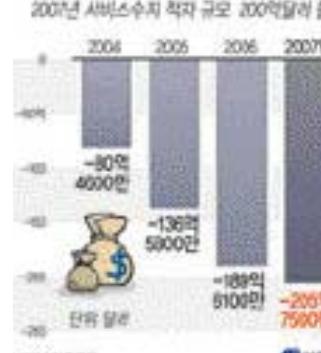
◇ 서비스수지 적자 200억 달러 돌파 = 30일 한은이 발표한 ‘2007년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을 보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5억 7천만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품수지 흑자 294억 천만달러의 70%에 해

당한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80억 달러에서 2005년 136억 6천만 달러로 확대된 뒤 2006년 189억 6천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여행수지 적자는 150억 9천만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7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여행과 유학·연수 비용으로 작년 한해 208억

## 서비스수지 적자 추이



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15억 달러 늘어난 294억 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3년 219억 5천만달러를 기록한 뒤 2004년 375억 7천만달러로 급증했으나 2005년 326억 달러로 감소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2년 연속 200억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유가급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웃돌면서 작년 12월에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달 26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4천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지원해왔던 상품수지 흑자(8억 1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연합뉴스

9천만달러가 지급된 데 반해 수입액은 58억 달러에 불과했다.

◆ 상품수지도 ‘흔들’ =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지원해왔던 상품수지 흑자(8억 1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연합뉴스

# 주가 1500도 무너질까

## 투자심리 급속 악화…펀드 환매 문의 빗발



코스피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1,589.06 포인트로 마감한 30일 오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가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코스피지수 1,500선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00선이 붕괴되자 우려했던 펀드대량환매(펀드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창구에선 항의가 빙빙쳤으며 환매주문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30일 증권업계는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 추가 하락을 배제할 수 없으며 1,500선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투자심리 위축 속 수급도 괴여 = 코스피지수는 이날 2.98% 금락한 1,589.06, 코스닥지수는 4.67% 폭락한 603.11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 낙폭은 일본 -0.99%, 중국 상하이지종합지

수 -0.90% 등의 3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온 국내 증시가 이같이 상대적으로 크게 빠진 것은 미국발 악재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급이 꾼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특히 최근 증시가 하락하며 ‘큰 손’으로 군집해온 미래에셋이 유종목들을 처분하고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작년 장세를 이끌었던 조선·해운·기계 등의 이익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에 매물이 쏟아져 증시가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 1,500선도 깨질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지지선으로 믿어왔던 1,600선이 힘없이 무너지자 이제 1,500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며 1,500선이 깨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 증시 주도주 중국 관련주에 서 IT로 교체되나 =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 조정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물러나고 IT, 은행, 자동차 등 지난 2년여간 활보해온 ‘못난이 삼총사’가 새롭게 주도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종목에 주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 이날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2.33%)와 하이닉스(3.37%), 삼성SDI(1.13%) 등 일부 IT주들은 상승했으며 국민은행(-0.49%), 기업은행(-0.29%), 대구은행(0.36%), 외환은행(-0.73%), 하나금융지주(-1.53%) 신한지주(-1.01%) 등 은행주들은 낙폭이 적었다.

◆ 1,500선도 깨질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지지선으로 믿어왔던 1,600선이 힘없이 무너지자 이제 1,500선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며 1,500선이 깨지는 상황도 배제할

# 금융 불안… 부자들 부동산 U턴

## 은행마다 옮들어 투자 상담 고객 늘어

최근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에 집중했던 금융기관의 ‘부자 고객’들이 부동산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초부터 국내·외 주식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부동산이 다시 재테크 대안으로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고, 대문화와 세금감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도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PB(프라이빗뱅킹) 센터에 따르면 옮들어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PB사업부에도 최근 부동산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

다. 이 은행 부동산 투자 담당자는 밀려드는 강의요청과 고객 상담에 쉴 틈이 없을 정도다.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펀드 등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을 처분하고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당장 투자로 옮기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심리적 귀환’을 한 사람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상담 내용은 상가 투자와 주류를 이용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며 “양도세·종부세 때문에 주택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나 건물쪽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상위 1% 계층이 순자산의 16.7%, 상위 5%는 39.8%, 상

위 10%가 순자산의 54.3%를 가지고 있었다.

1999년의 경우 상위 1%는 9.7%, 상위 5%는 30.9%, 상위 10%가 46.2%의 순자산을 갖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순자산 집중도가 더 높아져 계층간 차산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득 집중도 면에서 1999년에는 상위 1%, 5%, 10% 계층이 각각 7.8%, 19.9%, 28.3%의 소득집중율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상위 1%, 5%, 10% 계층이 각각 9.0%, 21.4%, 32.0%의 소득집중율을 보여 계층간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연합뉴스

## 상위 10% 계층, 국내 순자산 절반 이상 소유

##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국내 상위 10%의 계층이 우리나라 순자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것)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석’라는 논문

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의 계층이 국내 순자산의 54.3%를 보유하고 있는 등 순자산 분포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상위 1% 계층이 순자산의 16.7%, 상위 5%는 39.8%, 상

위 10%가 순자산의 54.3%를 가지고 있었다.

1999년의 경우 상위 1%는 9.7%, 상위 5%는 30.9%, 상위 10%

가 46.2%의 순자산을 갖고 있었으

나 2006년에는 순자산 집중도가 더

높아져 계층간 차산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득 집중도 면에서 1999년에는 상위 1%, 5%, 10% 계층이 각각 7.8%, 19.9%, 28.3%의 소득집중율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상위 1%, 5%, 10% 계층이 각각 9.0%, 21.4%, 32.0%의 소득집중율을 보여 계층간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서울검사(주)	「광주공과대학원」정규직 비교과경사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31	062-369-0790
㈜금강전력	회계전표작성(더존)·일반관리업무 여서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2/02	062-233-1004
광복직업전문학교	2008년도 교직원(훈련교사/직업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2	062-529-3000
한국광고TM	「한국광고TM」콜센터(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4	062-710-7548
아이티엠커뮤니케이션(주)	DBA 개발경력자	초대졸/경력6년	4000~5000	02/04	062-383-3931
㈜대불신기	전산입력 및 일반사무 여서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4	061-462-4181
㈜창조인프라	「급제용 웹디자이너」경(단기기능)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05	062-434-0363
㈜도원	피리비에프 MD매니저(광주)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05	062-381-8201
㈜태정공업	A/S업무 외 사업업무 직원(수질환경 산업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9	062-956-2413
㈜이스피디아이스코리아	광주사무소 홍보/해운 수입업무 사무직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0	062-373-1150
㈜유니셀	품질관리(사원 및 주임)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10	062-945-2644
㈜인정보기기술	시스템엔지니어, 보안소프트웨어, SE, C++, JAVA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11	062-603-0123
기신헬스	휘트니스 센터니오 요ガ강사	초대졸/경력7년	2400~2600	02/11	062-572-0622
대룡건설(주)	현장공무(과)장급/현장소장(부장급)/경리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1	061-762-6210

/연합뉴스

## 자영업 소득파악률 80%로

정부는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50~60% 수준인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가량으로, 이들의 과세자 비율은 현재보다 15% 포인트 가량 높은 7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56% 수준이었던 자영사업자들의 장부 기장비율은 매년 3% 포인트씩 높여 오는 2016년에는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소매업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점차 높이기로 하고 현금거래 노출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특별기고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지방 활성화대책 필요

참여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근절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제와 분양가 상